

현대조경설계에 나타나는 콜라주적 특성에 관한 연구

심영빈* · 이규목**

*조경설계 서안 ·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색종이나 신문 등을 이용하여 자르고 찢어낸 파편들을 조합하거나 겹쳐 만든 콜라주는 어렸을 적 누구나 한번쯤 경험한 놀이이다.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구성하는 콜라주는 색상, 대비, 조형, 구상 등의 경험을 마음껏 해볼 수 있게 하여 유아의 지능과 창의력을 키우는 디자인 교육으로 활용된다. 또한, 콜라주는 여러 가지 재료를 결합하는 자유로운 창작과정인 동시에, 비시각적인 개념과 아이디어를 형태화시키고, 작가의 의도를 담아내는 완성된 결과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콜라주는 미학적 개념상 근대미술시대 나타난 입체파(cubism)를 시작으로 본다.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나 피카소(Pablo Picasso, 1882~1973)가 화면에 그림물감 대신 신문지·우표·벽지·상표 등을 붙여 구성하는 ‘파피에 콜레’라는 기법을 개발해 냈고, 비로소 미술사 속에서 예술적 기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박찬국, 1999: 320)되었다.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하여 사진과 그래픽 이미지를 재료로 신문·포스터·광고 등에서 포토몽타주라는 기법으로 활용되었고, 조경이나 건축 등의 디자인 분야에서도 설계매체로 쓰이고 있다.

조경에서 기본설계과정의 설계도는 다이어그램·평면도·입면도·단면도·조감도 및 투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과적·보편타당한 설계방법은 조경의 모더니즘 경향과 어우러져 발전하여 지금도 널리 쓰이고 있다(정욱주, 2005: 97). 그러나 모더니즘 회화에서 영향 받은 조경드로잉은 실제 3차원적인 공간 창출과는 무관한 보기 좋은 드로잉에 탐닉하는 한계를 내포하였다. 설계도면을 위한 조경드로잉이 관용화된 틀로서 자리잡아가면서 드로잉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방식의 드로잉이 시도되었고, 1980년대 이후 콜라주나 포토몽타주는 탐구적인 조경드로잉에서 자주 이용(조경진, 1999: 148)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안들은 설계를 위한 사고나 디자인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프레젠테이션 수단의 하나로만 사용하였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이상민, 2006: 38).

그렇다면 현대조경설계에 나타나는 콜라주는 설계매체로서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 쓰이며, 그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또한, 조경설계가들은 콜라주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며,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가? 이 같은 의문에서 시작한 본 연구는 현대조경설계에 나타나는 콜라주의 본질과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 설계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콜라주 유형을 살펴보고, 기존의 설계방식과 달리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이와 더불어 시대의 유행적인 경향을 넘어서 조경에서 쓰이는 콜라주의 의미와 가치를 파악하고 적합한 설계매체로의 활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콜라주적 설계방식을 통해 구현되는 실제공간과의 연관성을 진단하고 실제적인 공간구현의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구성과 내용

연구의 내용은 모더니즘 이후 각 분야에 폭넓게 나타난 콜라주의 문화적 의미와 양상에 관한 고찰, 콜라주의 유형별 분석, 콜라주의 설계과정별 분석을 통해 현대조경설계에 나타나는 콜라주의 특성과 의의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19세기 후반 사회·문화·예술·과학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던 파편적·분열적·해체적 양상과 함께 나타난 콜라주의 의미와 양상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조경분야에서 쓰이는 콜라주의 개념을 한정하고, 콜라주적 특성을 재료적·방식적·의미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유형을 분류한다. 둘째, 콜라주 유형인 평면콜라주(plan collage), 포토몽타주(photomontage), 레이어링(layering), 중첩(superposition)의 유형별 분석을 통해 현대조경설계에 나타나는 콜라주적 특성을 도출한다. 셋째, 각 설계프로세스에서 나타나는 콜라주의 형태와 방식을 살펴보고, 설계도구, 설계방식, 설계프로세스, 공간구현에서 담당하는 콜라주의 의미와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현대조경에서 설계매체로서의 콜라주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의의와 한계를 점검하였다.

II. 분석의 틀

1. 콜라주의 의미와 양상

19세기 후반 사회·문화·예술·문학에서는 파편적·분열적·해체적 흐름이 전반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조이스(James Joyce)의 파편적 의식기법 소설,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분열적 정신분석,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의 상대성 이론 등은 시·공간을 인식하는 개념과 도시공간의 형성에 변화를 가져왔다(스티븐 컨, 2004: 19). 이를 바탕으로 입체파의 새로운 기법인 콜라주가 탄생하였고, 포토몽타주(photomontage), 앗상블라주(assemblage) 등을 통하여 표현영역이 확대되어 예술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1980년대 해체주의적 경향과 함께 해체 주의 건축이 시도되었고, 중첩(superposition), 병치(juxtaposition), 치환(displacement)과 같은 설계전략을 통해 조화가 아닌 서로 충돌하고 관계하는 방식을 추구했다(김원갑, 2000: 66). 콜라주에서 파생된 포토몽타주, 앗상블라주는 인쇄된 이미지이거나 삼차원적 오브제일 경우 재료를 조합하여 이미지를 창출할 때 쓰는 말이다. 레이어링(layering)은 이미지의 층(layer)을 결합하는 것이며, 중첩(superposition)은 공간의 물성이나 공간요소가 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콜라주는 '파편(fragment)'의 조각들이 조합되거나 겹쳐 만든 결과물'이라는 광으로 정의되며, 파편적인 요소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의미가 달라진다. 위의 배경을 종합하면 콜라주라는 용어가 '파편의 조각들이 조합되거나 겹쳐 만든 결과물'이라는 광으로 정의되며, 이는 파편적인 요소와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나타나는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 있다.

2. 분석의 틀

콜라주가 등장하게 된 시대적 의미와 예술분야에서 발달한 개념과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본 후 이에 도출된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조경설계에 나타나는 콜라주의 유형을 분석의 틀로 도출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콜라주는 용어상의 지속적인 혼동이 있어 왔다. 콜라주는 접합이나 붙이기를 통해 오브제라는 실체를 등장시키는데 반해, 몽타주는 오브제보다 이미지에 관계된다. 개념은 유사하지만 요소, 방식, 의미적인 측면에서 다

표 1. 분석의 틀

구분	요소적 측면	방식적 측면	의미적 측면
평면콜라주	종이·이미지·그래픽 드로잉 등 의 다양한 2차원 재료	구성의 방식	연속적 의미 생성적 의미
포토몽타주	사진을 주재료로 한 2차원 재료	구성의 방식 층위의 방식	연속적 의미 생성적 의미
레이어링	공간구조나 개념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2차원 재료	층위의 방식	연속적 의미
중첩	공간요소 : 구조, 형태/3차원 요소 : 물성/4차원 요소 : 시간성	구성의 방식 층위의 방식	생성적 의미

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조경영역에서도 상반된 의미와 양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어 콜라주의 유형을 평면콜라주(plan collage), 포토몽타주(photomontage)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면콜라주는 종이, 신문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설계구상단계에 쓰이는 개념을 말하고, 포토몽타주는 주로 사진을 이용하거나 컴퓨터의 이미지 소스를 이용한 방식으로 대상지의 현황이나 구상단계에 주로 쓰이는 것을 일컫는다. 현대조경설계에서 전략적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레이어링'과 조경공간에서 나타나는 형태인 '중첩'을 포함하여 콜라주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선정된 4가지의 유형을 콜라주의 요소적 측면, 방식적 측면, 의미적 측면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 표 5와 같은 분석의 틀이 도출되었다.

3. 사례분석 작품 선정

사례작품의 시간적 범위에 있어서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현대조경작품을 선정하기로 한다. 이는 조경에서 해체주의적 경향이 시작된 시기로 해체주의적 흐름과 함께 콜라주적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콜라주 드로잉이 실험적으로 1980년 후반 행해졌고, 이브 브뤼니에, 켄 스미스 등의 조경설계가는 이를 설계매체로 이용하였다. 공간적 범위에 있어서 공간의 해체주의적 경향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 라빌레뜨 공원을 선정하였다. 1990년대 조경에 있어 콜라주는 새로운 대안

표 2. 선정작품 목록

구분	프로젝트	년도	설계가
평면 콜라주	Waterloo Site Development	1989	Eves Brunier
	Freshkills Lifescape	2001	Field Operations
	Public Gardens in the Zac Everage in Paris	1988	Eves Brunier
포토 몽타주	P.S.(Public Space)19	-	Ken Smith
	Vertical Landscape	1996	West 8
	Freshkills Lifescape	2001	Field Operations
	Development of the Banks of River Adour in Dax	1991	Eves Brunier
레이 어링	Parc de la Villette	1982~1983	Bernard Tchumi
	East River Ferry Landings, NY,	-	Ken Smith
	Freshkills Lifescape, NY,	2001	Field Operations
	Schouwburgplein	1991~1996	West 8
중첩	Parc de la Villette	1982~1983	Bernard Tchumi
	Schouwburgplein	1991~1996	West 8
	Shanghai Carpet	2003	Tom Leader Studio
	Duisburg-Nord Landscape Park	1990~2002	Latz+Partner

적 드로잉을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제임스 코너는 필드 오퍼레이션으로 프레쉬킬즈에서 플랜콜라주와 포토몽타주 등을 전략적인 설계매체로 이용하여 당선되어 사례로 선정하였다. 또한, 콜라주의 폭넓은 양상과 표현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양한 현대 조경작품을 선정하였으며, 목록은 표 2와 같다.

III. 콜라주의 유형별 분석

조경은 20세기 후반 각 영역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장르 간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포스트모던 양상을 보였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포스트모던 조경은 조경설계방식에서 구성(composition)과 기하학(geometry)에 기초한 방식이 아닌 콜라주·파편화(fragmentation)·치환(displacement)·분열(dislocation)과 같은 방식에 바탕을 두었다. 1990년대 초 실험적으로 행해졌던 콜라주 방식은 인지방법이 우연적이며, 붙여진 사물 사이의 관계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직관적이고 주체 중심적인 드로잉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포토몽타주는 디지털 이미지가 보편화되기 전, 학교 스튜디오에서나 이브 브뤼니에(Yves Brunier), 캔 스미스(Ken Smith)와 같은 몇몇 설계가에 의해 실험적으로 행해졌으며, 성향과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현대 조경에도 이어져 상충(conflict)과 파편화(fragmentation)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공원 설계매체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조경설계에서 보이는 콜라주적 특성을 평면콜라주(Plan Collage), 포토몽타주(Photomontage), 다층화(Layering), 중첩(Superposition)으로 구분하여 요소적·방식적·의미적 측면으로 유형화 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표 3 참조).

IV. 콜라주의 설계과정별 분석

1. 설계도구의 콜라주

1) 재현적 수단

재현(representation)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다시(re) 드러내기(presentation) 위한 행위를 의미하며(최광진, 2004: 25), 조경설계에서 재현적 수단이란 풍경이나 사물 등을 드러내는 표현매체로서의 도구를 말한다. 포토몽타주는 사진이미지를 드로잉 대신에 대상지 현황모습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재현적인 수단에 사용된다. 평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입체적인 공간을 나타내기 위한 여러 시점의 사진을 연속적으로 배치한다. 이때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쉽고 빠르게 조립할 수 있다. 이는 실제의 공간이 구현되기 전의 ‘미리보기’의 역할을 수행하며, 클라이언트에게 구현될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재현수단으로 이용된다. 결국 포

토몽타주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이나 풍경을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1차적인 재현적 기능을 수행한다.

2) 전략적 수단

포토몽타주에서 사진은 하나의 텍스트로서, 공간의 개념이나 구조 등을 설명하는데 도해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게 된다. 설계경기의 마스터플랜에서 포토몽타주는 자극적인 시각효과를 창출하는 적절한 도구로써 기능한다. 물성이 서로 다른 재료를 결합시키거나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 요소들의 병치는 환각적인 풍경을 형성하며, 의도적인 비유가 성립한다. 이처럼 설계가가 이미지의 스케일을 조작하고 그것을 배치하는 작업은 단순한 재현이 아닌 설계가의 의도와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전략적인 역할을 한다. 레이어링에서 각각의 레이어는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나 구조 등을 나타내며, 이를 나열하거나 겹치는 방식으로 정보를 한눈에 인식하고 개념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결합된 레이어는 종합적인 정보나 개념을 나타내거나, 각각의 레이어가 충돌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생성한다. 이는 설계가가 의도하는 물리적 계획이나 개념을 표현하는 전략적인 수단으로 이용된다.

2. 설계방식에서의 콜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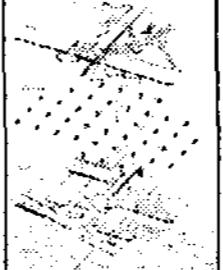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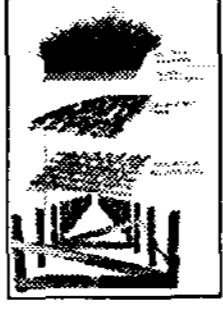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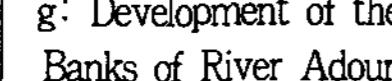
1) 아날로그 방식

플랜 콜라주(plan collage)는 현실적인 스케일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직접 다양한 이미지와 접목시켜 보는 방법이다. 이 단계에서 설계가는 대상지를 백지 상태로 보고 무의식적으로 여러 이미지를 합성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설계자가 어떠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것은 주관적인 결정이며, 대상지에서 체험했던 시각·청각 등의 공감각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미지를 선택하고 편집하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은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며, 설계자 내면의 무수한 결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처럼 직접 종이와 사진을 뜯어 붙이는 아날로그적 방식의 콜라주는 설계가만의 개성과 손맛을 표현할 수 있고, 하나의 예술품처럼 유일무이한 조경작품을 가능케 한다. 또한 설계가의 추상적 개념을 시각적인 형태로 드러내며, 우연적인 발상과 상상, 그리고 피드백으로 유연한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

2) 디지털 방식

포토몽타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지 현황 사진 등의 이미지소스를 단시간에 합성하여 공간에 대한 입체적인 구상을 투영할 수 있다. 레이어링 또한 컴퓨터의 역할로 모든 정보를 층위화하고 쉽게 분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보의 축적과 배열을 손쉽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컴퓨터는 단순한 제도 도구의 역할에서 벗어나 디자인의 혁신적인 전개 방법

표 3. 사례분석의 종합

구분	요소적 측면	방식적 측면	의미적 측면	계획 단계	구분	요소적 측면	방식적 측면	의미적 측면	계획 단계	
평면 콜라주 (plan collage)		다양한 패턴의 종이	구성의 방식	생성적 의미	구상		점, 선, 면의 공간요소 이미지	층위의 방식	연속적 의미	구상
		그래픽 드로잉, 이미지	구성의 방식	생성적 의미	구상		토양, 배수, 하부구조 층의 구성요소 이미지	층위의 방식	연속적 의미	기본 설계
		다양한 색상의 종이	구성의 방식	연속적 의미	기본 설계		파종, 기반시설, 프로그램, 응용의 공간계획별 단계 이미지	층위의 방식	연속적 의미	구상
		사진, 이미지소스	층위의 방식	연속적 의미	기본 설계		구조물, 동선, 공간의 3차원적 공간요소	층위의 방식	생성적 의미	공간
		사진, 이미지소스	구성의 방식	연속적 의미	기본 설계		바닥, 빛의 기둥 등의 다양한 물성	층위의 방식	생성적 의미	공간
		이미지소스	구성의 방식	생성적 의미	기본 설계		포장패턴의 다양한 물성	구성의 방식	생성적 의미	공간
포토 몽타주 (photomontage)		사진, 마스킹 테이프	층위의 방식	연속적 의미	구상		과거와 현재의 대조적인 물성과 시간성	층위의 방식	생성적 의미	공간
										

과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즉, 설계가들은 이미지소스의 배치를 통해 현실의 모습을 인식하며 자신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경관과 공간을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체화한다. 이러한 설계방식은 이미지의 무한한 복제가 가능하

며 의미가 재창조된다. 또한, 동시다발적인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전체 평면도를 드러나게 하는 비선형적이고 리좀(rhizome)적인 특징을 보인다.

3. 설계프로세스에서의 콜라주

1) 우연적인 구상단계

평면콜라주는 설계가가 대상지에서 체험했던 풍부한 경험이나 느낌을 은유적으로 재현하는 설계의 구상단계에 쓰인다. 설계의 구상단계에서 우연적이고 주관적인 행위와 과정을 거치는 콜라주 방식은 대상지의 보이지 않는 시간성, 잠재성 등의 가치를 발견하고 담아냄으로써 이전의 정량적이고 수치적인 설계방식을 보완하는 감성적인 설계에 이용할 수 있다.

2) 의도적인 계획단계

백지 위에 종이나 이미지를 오려붙이거나 드로잉을 첨가하는 콜라주의 방식은 공간의 계획단계에 있어서 설계가가 의도하는 공간을 빠르고 쉽게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이미지나 종 이를 뜯어 붙이는 콜라주를 이용한 공간의 구획·배치는 설계가의 의도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현황사진위에 드로잉을 첨가하여 설계가의 계획의도를 강조한다. 또한, 다양한 물성을 가진 재료를 결합하여 변화될 공간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고, 설계가의 의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계획단계에 쓰인다.

4. 공간구현에서의 콜라주

1) 상호관계적 설계방식

레이어링에서 나타나는 설계도면상의 개념은 실제 구현되는 공간에 영향을 미치는데 각 레이어의 개념은 실제공간요소로 전환되어 중첩되는 양상을 보인다. 즉, 2차원적 설계도면에서 설계가가 의도한 공간요소나 구조의 레이어는 중첩된 공간요소와 구조로써 기능하며, 이용자들이 새롭게 만들어내는 행태나 프로그램이 겹쳐져 다양한 기능과 이벤트가 생성된다. 보통 설계경기의 마스터플랜은 실제 공간 안에 계획될 요소보다는 참신한 전략과 시각적인 효과가 요구된다. 설계도면의 평면적 한계로 구현되는 공간이 마스터플랜과 다른 공간으로 변모하거나 실제공간과의 연관성이 무의미해지고 있다. 그러나 설계매체와 공간구현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레이어링과 중첩은 설계매체에서 공간으로의 일대일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2) 공간의 충돌

조경공간에서 다양한 물성을 가진 재료를 이용하여 공간을 조성하는 콜라주 방식은 여러 가지 색상이나 상반된 재질감을 지닌 재료가 충돌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다채로운 효과를 창출

한다. 현대에 이르러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나 브라운 필드 등의 대상지는 기존 물리적인 형태인 건물과 시설물 등을 남겨 과거의 흔적을 살리는 수법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과거의 물리적 형태와 새로운 계획 공간, 과거와 현재의 시간성의 상반되는 개념이 결합하여 충돌함으로써 색다른 느낌과 감흥을 준다. 즉, 콜라주의 방식을 이용하여 과거와 현재의 대상지에 다양한 재료의 물성, 프로그램, 시간의 개념이 결합하여 다채로운 경관과 시간성이 담긴 공간으로 창조할 수 있다.

V. 결론

1. 현대조경설계의 콜라주적 특성

1) 다양한 설계프로세스에서의 활용

'파편의 조각들이 조합되거나 겹쳐 만든 결과물'의 의미를 지닌 콜라주는 현대조경설계의 설계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창출한다. 첫째, 설계구상단계에서 설계가가 대지에서 체험한 느낌 등의 주관적인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 우연적으로 결합하는 콜라주 방식을 통해 비시각적인 정보를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으며, 정해진 설계과정에서 벗어나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다. 둘째, 계획단계에서 사진 등의 다양한 이미지를 콜라주함으로써 미래공간과 이용자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재현한다. 또한, 현황위에 간단한 콜라주 작업을 통해 설계가의 계획의도를 드러내며 변화될 공간을 나타낸다. 셋째, 설계도면에서 실제 공간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설계도면에서 결합된 레이어의 개념과 전략은 실제공간을 이루는 요소나 물성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각각의 레이어는 공간구조와 체계의 충돌로 이어져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위를 발생시킨다. 넷째, 콜라주는 조경공간에도 나타난다. 최근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나 브라운 필드 등의 대상지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조적인 시간성이 중첩되거나 대상지의 각기 다른 재료와 색채가 결합된 공간이 그 예이다. 과거와 현재의 시간성, 상반된 물성, 대조적인 풍경이 콜라주되어 다채로운 경관을 이루며, 이용자들에게 의미와 감동을 부여하고 독특한 경관을 연출하게 된다.

2) 콜라주의 이중적 특성

콜라주는 설계방식과 생성되는 의미에 있어서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설계구상단계에서 콜라주는 설계가의 감정이나 느낌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다양한 소재나 이미지를 배치하는 과정은 상당히 무의식적인 행위이다. 대조적으로 대상지의 현황을 나타내거나 미래 모습을 재현하는 행위는 설계가의 의도와 계획을 표현하기 위한 방식이다. 즉, 콜라주는 설계가의 의도적인 성향과 우연적인 성향을 모두 포함하는 설계방식으로 진행된다. 둘째, 다양한 각도를 찍은 사진

을 이용하여 연속된 장면을 나타내는 구성방식은 부분이 하나로 종합되는 연속선상의 의미를 지닌다. 반면 상반된 이미지나 의미를 지닌 레이어의 결합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의미를 생성시킨다. 즉, 파편이 결합된 콜라주는 부분의 총합인 연속선상의 의미와 부분이 충돌하여 생성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모더니즘 시대 변화를 주도한 콜라주는 재현적인 회화의 한 계를 탈피하여 공간에 시간성을 담아내는 실험적인 기법이었다. 현대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의미는 지속되며, 창조적·실험적인 설계매체수단으로써 의의를 지닌다. 또한,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 콜라주방식은 모호함과 혼돈의 시대인 현대조경에서 복합적이고 유연한 설계방식으로 쓰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조경공간을 계획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설계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 및 표현과 자유로운 구상의 과정이 필요하다. 콜라

주 방식은 설계가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의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며,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소통적 설계매체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

인용문헌

1. 김원갑(2000) 건축과 해체. 서울: 세진사.
2. 박찬국(1999)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서울: 재원.
3. 스티븐 컨(2004)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서울: 휴머니스트.
4. 이상민(2006) 설계매체로 본 한국 현대조경설계의 특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5. 정옥주, 제임스코너(2005) 프레쉬 킬스 공원 조경설계. 한국조경학회지 33(1): 97.
6. 조경진(1999) 조경드로잉의 변천과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7(2): 148.
7. 최광진(2004) 현대미술의 전략. 서울: 아트북스.